

# 扶餘新里의 百濟土墳墓

姜 仁 求

## 一、序言

百濟墓制는 다른 時代에 比하여 매우 多樣하며 其中에서 오래도록 基本形을 維持하여 時代가 變遷하여도 變하지 않는 形式이 土墳墓라 하겠다. 百濟時代의 土墳墓의 分布는 漢江流域의 石村洞·可樂洞地區, 瑞山 大山地區, 草村灘川地區 등에서 四·五基씩 發見 報告된 바 있다. 扶餘에 서는 草村素沙里에 이어 今番 新里가 두 번째인데 忠南地方의 大山 素沙里 新里 등은 아주 簡單한 構造가 서로 類似하며 이와 같은 土墳墓는 더 많이 넓게 分布되었을 것이나 構造가 簡單하고 地表에서 낮기 때문에 모두 破壞되고 關心者의 눈에 잘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特別히 今番 新里것은 都城과 直近 距離에 所在하였다는 點에서 特別히 注目된다.

## 二、位置 및 發見經緯

土墳墓가 發見된 地點은 扶餘郡 窺岩面 新里의 俗稱「개매жат」이란 곳인데 扶蘇山의 西麓「구드레」나루를 건너서 바로 나타나는 山의 들짜 稜線 中턱이다.

一九七五年 四月 六日 寒食日에 鴻山面 鴻山里 居住 金鐘培氏(四四歲)가 그의 曾祖父母墓를 修築하기 위하여 北便 一m 距離에서 甓를 뜨다가 鐵製劍을 發見 切斷한 것을, 함께 作業하는 新里 居住 白昌基氏와 扶餘博物館에 申告하여 왔다. 當館에서는 扶餘郡과 道、文化財管理局과 連絡을 取하고 七五年 四月 七日 現場調査를 하였다. 現場에 가 보니 古墳은 이미 中間部分에서 下部까지 約二m 가까이 破壞되어 있었다.

古墳의 位置는 稜線의 中턱 西南斜面에 가로 걸려 所在하고 그 위로

는 上頂에 이르는 幅 一m의 山길이나 있으며 西쪽 一m 距離에 前記 金氏家의 墓가 있고 北쪽에서 東쪽으로는 電柱列이 通過하였다. 古墳의 右便으로는 방침아벌과 午水물이 바라 보이며 東쪽으로 頂上을 넘으면 傳王興寺址가 있는 王安部落이 있다.

調査에는 筆者 外에 學藝研究士 徐聲勳과 李揆山이 함께 하였다.

## 三、古墳의 構造

古墳은 前記한 바와 같이 山中턱 西斜面에 가로 놓여 있어 長軸을 南 北으로 取하여 稜線의 方向과는 直交의 狀을 이루었다. 古墳 所在 地面은 約三〇度의 傾斜를 이루고 있어서 封土는 오래 前에 流失된 듯 現在는 全히 根據를 찾아 볼 수 없고 또 金氏家墓 造成時 다시 削土되었다가 今番의 古墳의 中間 以下部가 더 破壞되었다.

古墳은 石비레層에 壙을 파고 壁面을 골라서 바로 甓面을 壁으로 利用한 土墳墓이며 現在는 東의 長壁과 北의 短壁만이 낮게 殘存하고 西의 長壁과 南의 短壁는 겨우 範圍만 確認되고 壁體는 完全히 破失되었다. 그리고 西壁쪽은 壁線을 따라 雜石(人頭大)이 中間까지 不規則하게 列을 이루고 一段이 있었는데 아마도 上蓋部에서 落下된 것으로 보인다. 東壁의 가장 높게 남아 있는 壁은 위로 부터 三三cm가량이 砂質土로서 附近地面과 같은 表土層이고 그 以下 五三cm가 석비레의 原土壁이며 北壁은 現高 七五cm中 表土層이 二五cm 그 以下 五〇cm가 石비레 原土壁이다. 全體的으로 壁의 殘高는 自然地面의 傾斜에 따라 東쪽 登頂上方面이 높게, 西쪽이 낮게 또는 痕跡만 남게 되었다. 그리고 石비레層이 老衰가甚하고 部位가 表土에서 낮게 位置하고 있기 때문에 自然이 壁面은 고르지 못한 形狀인데 古墳造營當時에는 一直線의 整齊된 壁面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바닥은 아무런 施設이 없이 壁面과 같이 石비레의 甓面層을 그대로 利用하였고 遺物도 이 위에서 發見되었다.

上蓋部는 確實한 根據를 提示할 수는 없으나 推測컨대 土壙上面에 나무같은 것을 걸치고 그 위에 人頭大나 그보다 작은 雜石을 놓고 封土를 덮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것은 아직까지 先史時代나 歷史時代의 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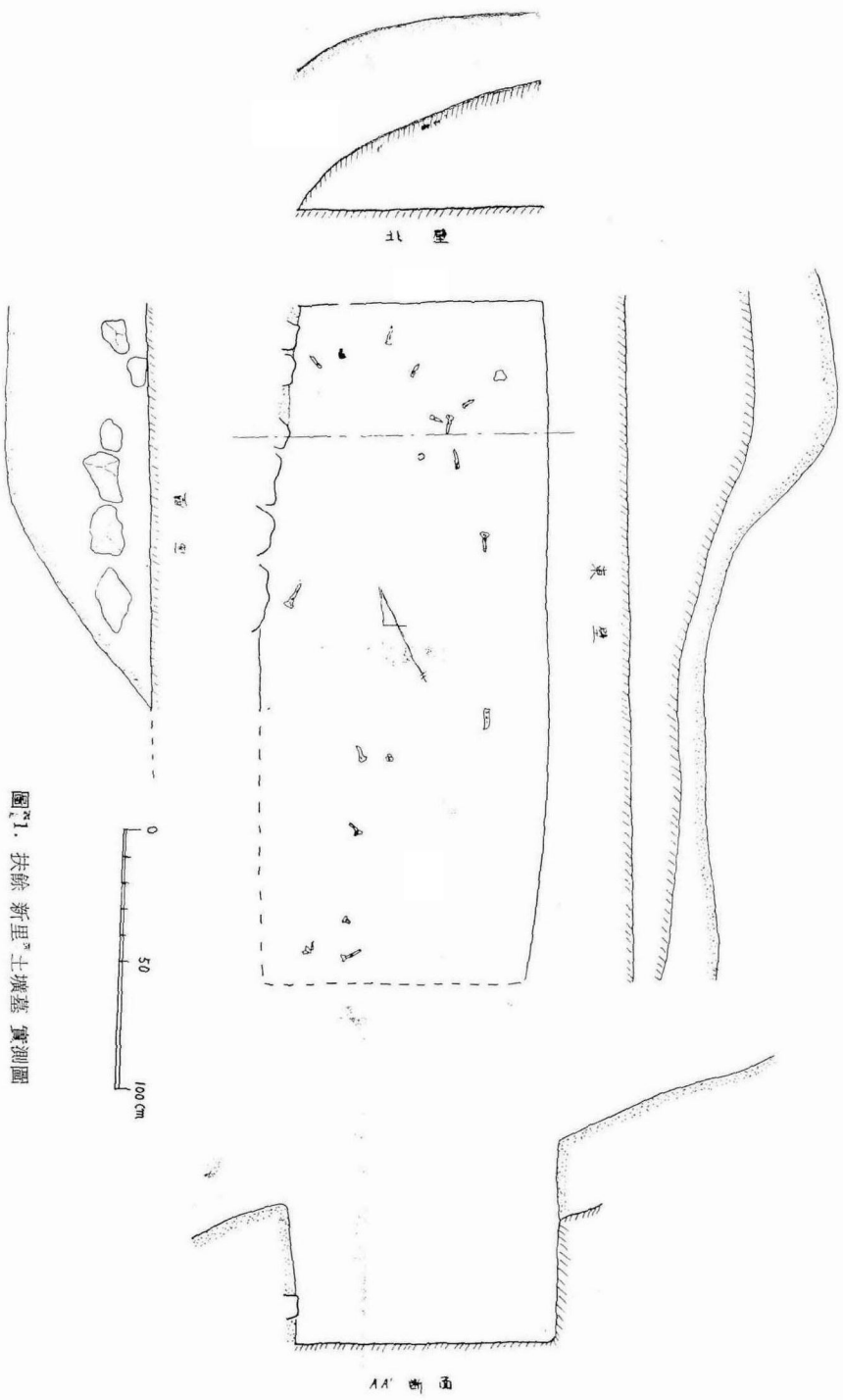


圖 1. 扶餘 新里 土城墓 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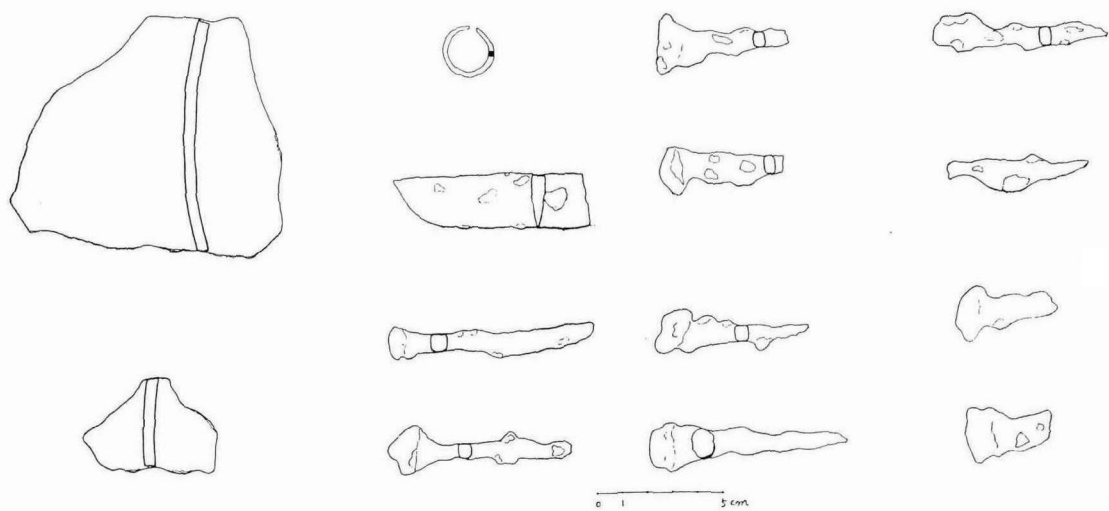


圖 2. 扶餘新里土壙墓出土遺物實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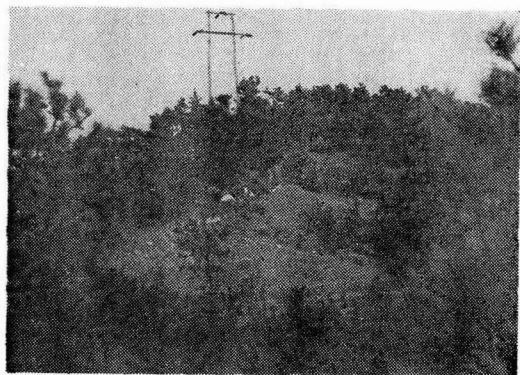


圖 3. 扶餘 新里 土壙墓 位置全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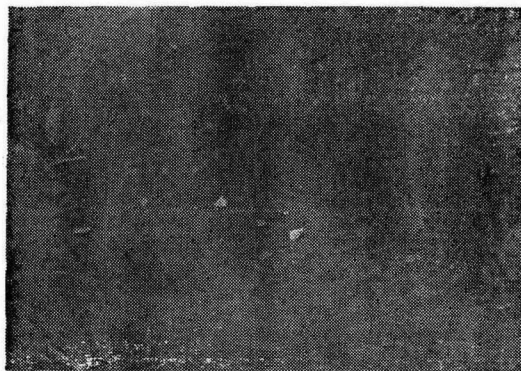


圖 4. 扶餘 新里 土壙墓 東·北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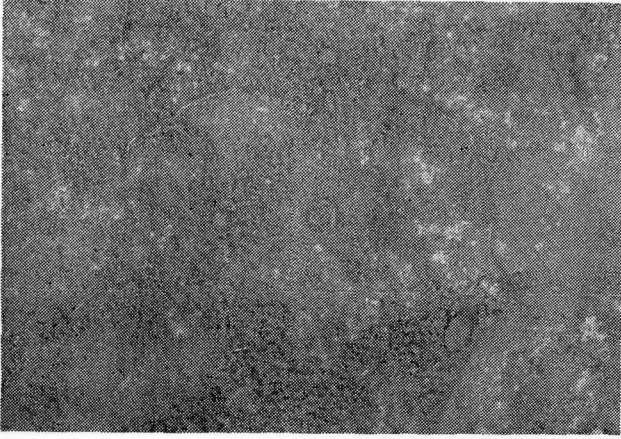


圖 5. 扶餘 新里 土壙墓 遺物出土狀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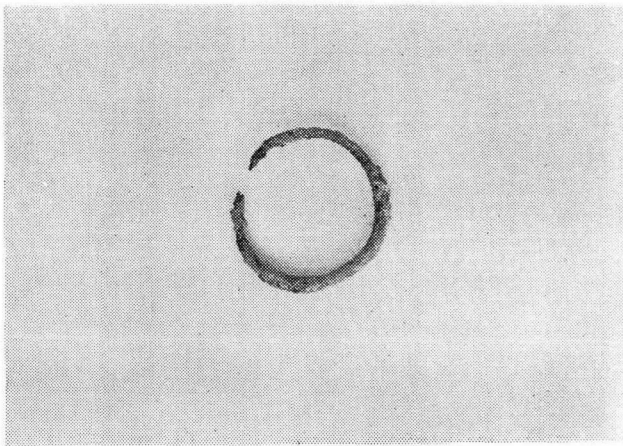


圖 6. 扶餘 新里 土壙墓出土 金銅環

墳墓에서 上蓋部の 構造가 發見된 일이 없으며, 朝鮮時代의 土墳墓에서는 壙 上面에 橫帶라는 板木을 걸치고 그 위에 封土를 덮는 方式을 取하고 있는데 모든 古墳이 다 그러하지만 特히 其中에서도 土墳墓가 先史時代부터 가장 오랫동안 傳統을 固守하고 있어서 百濟時代에서도 그와 같은 橫木을 걸쳤을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여기의 壙內에서 雜石이 十餘個 以上 發見되고 或 어떤 것은 雜石 위에서 遺物이 發見되고 있는데 壙內는 다 알다 싶이 埋葬主體部로서 屍體 安置에 防碍가 되는 雜石들을 意識的으로 넣었을 理는 萬無하고 위에서 即 橫木이 씌어서 封土가 陷沒될 때 먼저 떨어져 들어간 것으로 보여진다.

故로 一端은 上蓋部는 壙 上面에 橫木을 걸치고 그 위에 雜石을 놓고 다시 封土를 덮은 것으로 推定하여 두는 바이다. 그리고 小形石 槨墓 등에서 發見되는 板石形 蓋石은 發見된 일도 없을 뿐 아니라 事理에 맞지 않을 것이다.

玄室의 크기는 一〇八cm × 二五八cm 이다.  
長軸은 南北을 取하고 있으나 西南으로 三〇도가량 西向하였다.

#### 四、出土遺物과 出土狀況

##### 金銅製環 一點

細環 銅心에 鍍金이 얇게 씌워진 것으로 腐蝕이甚하여 약간의 痕蹟만 남아 있고 外徑二·一cm 寬기〇·二cm, 北壁에서 六·七cm, 東壁에서 四·九cm 떨어진 곳 石비레바닥 위에서 發見되었다. 位置로 보아 裝身具로 보여진다.

##### 鐵製刀子片 一點

現存 길이 七·八cm 刀身幅二·二cm 등 두께 〇·七cm 이나 發見當時는 完全하였다 하며 三切된 銼部이며 元來는 四〇cm 가량 되었다 한다.

北壁에서 一五五cm, 東壁에서 二三cm 거리에서 長軸과 나란히 向南하여 發見되었다.

##### 鐵製棺釘 一七點

圓頭 方身形이며 完全한 것은 길이가 七·七cm 頭徑二·一cm, 바닥

全面에서 골고루 發見되었으며 이들로 보아 棺의 크기는 大略 二二五cm × 七五cm 程度이다.

##### 土器破片 一〇點

球形壺身의 破片으로 보이며 軟質의 赤色系土器이다. 身部에는 查理文을 全身에 施文하였고 短頸으로 보인다. 扶餘時期의 百濟土器로서는 時代가 올라 가는 것이다. 이들은 一個의 土器片이며 東北隅 棺外區域에서 發見되었다.

#### 五、古墳의 方向과 枕向

古墳은 西南向을 하고 있으며 이것은 後代의 風水地理와는 아무런 關聯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枕向은 北枕으로 보인다. 그것은 裝身具로 보이는 環이 北쪽 棺內에서 發見되었고 鐵製刀子의 向이 南쪽인 點으로 보아 北枕이 틀림없다.

#### 六、考察

前述한 바와 같이 百濟時代의 土墳墓의 發見例는 漢江流域의 石村洞 可樂洞·忠南 瑞山郡 大山面 明智里·扶餘郡 草村面 素沙里 等地인데, 이들 중 漢江邊의 것들은 地層構造로 보아 土墳墓라기 보다는 土築墓라고 하는 것이 妥當할 듯 하여 全혀 다른 性格임으로 別個로 取扱되며 나머지 明智里와 素沙里는 大體로 같은 形式으로 보이는데 이들과 比較하여 약간의 考察을 加할까 한다.

먼저 位置上으로 보면 明智里는 約三〇度の 傾斜진 山中턱에 있고 素沙里는 約二〇度の 傾斜진 山中턱에 있었다. 또 여기 新里의 것도 約三〇度の 傾斜面에 있어서 이 셋 모두가 二〇—三〇度の 山 斜面을 利用하고 있는 것이다.

方向은 大概의 古墳이 山이나 丘陵의 方向과 一致하고 있는데 이들 三곳의 土墳墓는 이런 地理上 方向을 考慮치 않고 있으며 新里는 오히려 稜線方向과 直交하고 있다.

枕向은 一定치 않아서 明智里가 東枕, 素沙里가 東枕 또는 南枕(1基), 新里가 北枕으로 각각 다른 樣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點은 初期에는

東枕을 주로하다가 後期에 와서는 다른 形式 卽 石室墳等과 같이 西南向을 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構造는 明智里가 一般土層에 土壙을 파고 石비레層을 바닥으로 利用하고 있는데, 素沙里와 新里에서는 石비레層에 土壙을 파고 있어서 같은 形狀을 보이고 있으며, 길이에 있어서도 素沙里는 四〇cm—六〇cm이고, 新里는 五〇cm餘이며 크기에 있어서도 長2m內外 幅1m內外로서 거의 비슷한 構造와 規模를 하고 있어서 같은 地方의 土壙墓로서 同系를 보여 준다.

그리고 明智里와 素沙里에서는 木棺을 사용한 痕蹟을 전혀 發見할 수 없었는데 新里에서는 棺釘이 一七點이나 發見되고 있어서 木棺을 使用하였음이 分明하다. 그러나 明智里와 素沙里에서처럼 木棺使用의 痕蹟이 없었다 하여도 木棺使用이 否認되는 것은 아니며 왜냐하면 木製나 竹製의 木을 使用하는 수도 있고 棺材를 서로 잇매겨 結合하는 方法도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木棺은 新里의 境遇 分명한데 木棺을 使用하는 慣習은 公州時代에 와서는 거의 一般化되었던 일이고 더욱이 扶餘時代에 와서는 原則처럼 되어 있다.

土蓋部의 問題에 있어서는 三곳 모두 分明치 않으나 明智里·素沙里에서는 壙中에서 고운 粘土만이 發見되어 二곳 모두 屍體 위에 바로 흙을 덮는 말하자면 蓋部가 따로 없는 아주 簡單한 形式으로 推測되는데 新里에서는 雜石들이 多數 發見되어 蓋部의 存在를 推測케 하고 있으며 이는 아마도 木棺을 使用하고 있는 것과 어떤 相關關係가 있는지 모른다.

土器는 壺의 破損品으로 보여 지는데 이와 같은 文樣 卽 자리文은 素沙里 C號墳에서 球形身의 完全한 壺가 發見된 일이 있고 또 漢江流域의 風納里土城內에서도 發見된 일이 있다.

棺釘은 百濟古墳에서는 方頭釘과 圓頭釘의 二種類가 있는데 圓頭釘이 多數이고 宋山里 一·二·五墳에서 各各 出土된 일이 있고 어떤 것은 鍍金한 것도 있으며 길이에 있어서 新里의 것이 멀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면 棺材가 대단히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鐵製刀子로 보아 무덤의 主人公은 男性으로 생각되며 當時에

있어서 塼築墳·穹窿狀天井石室墳·板石造石室墳은 新出의 形式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土壙墓는 더 前에 들어와 土着된 形式으로 보여지며 汝郞 土壙墓라 하여 下層의 庶民用으로만 생각할 수 없다. 單只 傳統과 風俗의 差異로 보여지며 造營年代에 있어서도 扶餘遷都初期나 그렇지 않으면 거기서 過히 멀지 않는 前代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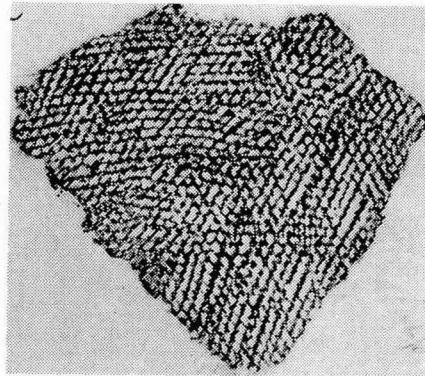


圖 7 扶餘新里 土壙墓出土 土器片文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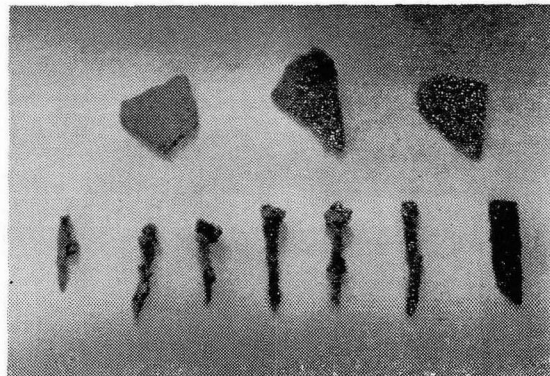


圖 8 扶餘新里 土壙墓出土 遺物

參 考 論 文

- 金永培·韓炳三·「瑞山大山面 百濟土壙墓發掘調查報」『考古學』第二輯。一九六九年 六月 韓國考古學會
- 安承周·朴秉國·「百濟古墳文化의 研究」—扶餘·草村面 素沙里 百濟土壙墳을 中心으로—『百濟文化』第五輯 公州師範大學 一九七一
- 尹世英·「서 울可樂洞古墳發掘調查報告」『考古學』第三輯。韓國考古學會 一九七四
- 金元龍·「風納里包含層調查報告」서울大學校考古人類學叢刊 第三冊 一九六七年
- 朝鮮總督府·「昭和二年度古蹟調查報告」